

‘1960년대’의 시적 재현과 수치(羞恥)의 정동 : 권일송(權逸松)의 초기 시를 중심으로

조 은 주*

1. 1960년대 시문학사의 ‘공백 -『신춘시』와 문제적 시인으로서의 권일송
2. 혁명 정신의 좌절과 잔혹한 낙관주의의 종언
3. 1960년대 역사적 사건의 재현과 ‘폐허의 조국’
4. ‘언어의 몰락’과 ‘수치’로서의 시 쓰기
5. 결론: 4·19세대 정동으로서의 ‘수치’와 이후 권일송 시의 행보

<국문초록>

본 논문은 권일송의 초기 시에 재현된 ‘1960년대’와 ‘수치’의 정동을 분석한 것이다. 권일송은 시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주저 없이 ‘저항’에 정위한다. 1960년대 시적 정체성을 ‘저항’으로 택한다는 것은, 동시대 여러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한 4·19 혁명과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는 것이다. 권일송의 혁명 정신은 4·19로 상징되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향한 적극적인 지향, 즉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일체의 폭력적 세력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에 대한 보편주의적 사랑으로 집약된다. 그는 혁명의 유산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작품에 담고자 노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세계, 잔혹한 낙관주의가 종언된 세계에 도달한다.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대신 그가 선택한 방식은 추악한 ‘돼지의 진실’을 대면하고 그것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권일송은 국토건설단, 제5대 대통령 선거, 제6대 국회의원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iampoem@naver.com)

선거, 불법밀수사건, 존슨 대통령의 방한, 국회오물투척사건 등과 같은 1960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의 몸을 관통하는 감정, 감각들과 함께 재현한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눈물과 우울, 패배감,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이 팽배하다. 종국에 그는 언어의 몰락을 선언하고 자신의 시를 ‘수치의 시 쓰기’로 규정한다. 혁명 정신의 좌절을 통해 만나게 되는 ‘수치’는, ‘1960년대’를 수치의 경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인의 윤리의식과 결부된 중요한 정동이다. 요컨대 권일송은 어느 시인보다도 성실하게 ‘1960년대’를 재현했으며 특히 4·19 세대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치’의 정동을 통해 발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권일송, 수치, 정동, 혁명정신, 1960년대

1. 1960년대 시문학사의 ‘공백-『신춘시』와 문제적 시인으로서의 권일송

1960년대는 일반적으로 ‘참여시’와 ‘순수시’가 격돌한 시대로 회자된다. “시의 현실 참여와 순수 문제가 문단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던”¹⁾ 시기, “문학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견해 역시 생겨났”²⁾던 시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현대문학사』³⁾, 『한국현대문학사』⁴⁾, 『한국 현대 시문학사』⁵⁾ 등 문학사의 정리를 훑어보면 ‘참여시’의 경우 김수영, 신동엽 등 대표적 시인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이를 김준태, 신경림, 이성부, 조태일, 최하림 등이 이어받았다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 ‘순수시’의 경우 강우식, 고은, 김

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3, 204쪽.

2) 이승하 외, 『한국 현대 시문학사』, 소명, 2019, 240~241쪽.

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9, 444~445쪽.

4) 권영민, 앞의 책, 197~216쪽.

5) 이승하 외, 앞의 책, 216~239쪽.

구용, 김규태, 김광림, 김광섭, 김영태, 김종삼, 김종해, 김춘수, 김현승, 마종기, 마종하, 문덕수, 박남수, 박목월, 박재삼, 박제천, 박의상, 박이도, 박희진, 성찬경, 송옥, 오세영, 오택번, 이견청, 이수익, 이승훈, 이유경, 이탄, 정진규, 주문돈, 천상병, 허만하, 황동규 등 다수의 시인을 꼽으며 서정성, 주지주의, 언어 실험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다. 김수영이나 신동엽과 관련된 서술에 비교적 많은 지면이 할애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 거론되는 시인의 양과 지면의 비율은 ‘순수시’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다.⁶⁾

문학의 현실 참여의 문제가 강렬하였고 많은 시인들이 4·19 체험을 바탕으로 자유에의 갈망을 보여준 시대였다는 평가⁷⁾와는, 너무 상이한 결과가 아닌가. 혹자는 김수영과 신동엽의 문학적 성과에 비해 다른 참여시 계열 시인의 작품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단한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문학사의 서술만으로는 김수영, 신동엽, 신경림, 이성부, 조태일, 김준태, 최하림을 제외한 다른 참여시 계열 시인이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은, 불균형하다 못해 기형적이다. 그렇다면 196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인 이승훈이 기억하는 당대 시 문단은 어떠한지 그의 회고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4·19 세대라 할 60년대 시인들이 한 일은 이들 앞 세대에 의하여 제기된 시작 행위에 대한 자의식이 본격화되었고, 따라서 현대시에 대한 지적 통찰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찰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신춘시**』 동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6) 참고로 2019년에 출간된 『한국 현대 시문학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대는 “문학의 사회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로 정리되지만 실제 1960년대의 시의 세 가지 유형으로는 1) 현실참여시 2) 서정시 3) 주지적 경향과 언어 실험시 등이 꼽힌다. 1)의 경향으로 김수영과 신동엽이 중심이 되어 서술되며 이것이 이성부, 신경림, 조태일, 최하림 등에 의해 이어졌다고 본다. 2)의 경향으로는 정진규, 이승훈, 오택번, 오세영, 이견청, 마종하, 이수익, 박의상, 이유경, 김종해, 김규태, 허만하, 주문돈, 성찬경, 박희진, 박이도 등을 언급하였고 3)의 경향으로는 김춘수, 김구용, 김광림, 문덕수, 이승훈, 이견청, 박의상, 황동규, 김영태, 마종기 등을 들고 있다.

7) 이승하 외, 앞의 책, 240쪽.

현실 참여적 경향, 둘째로 『현대시』 동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내면 탐구적 경향, 셋째로 이행 말씀처럼 지식인 의식을 지향하는 경향입니다.⁸⁾

이승훈은 1960년대 시의 대표적 경향을 ①『신춘시』 동인을 중심으로 한 현실 참여적 경향, ②『현대시』 동인을 중심으로 한 내면 탐구적 경향, ③ 지식인 의식을 지향하는 경향 등 세 개의 경향으로 분류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현실 참여적 경향이 강했던 『신춘시』 동인이 존재했으며 이는 분명히 60년대 시 문단에서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신춘시』는 엄연히 1960년대 존재하던 동인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 일종의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 1965년 5월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신춘시』 역시 권력의 감시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자진 폐간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테면 ‘불온성’으로 규정된 탓에 문학사에 기입되지 못했으리라는, 길혜민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⁹⁾ 4·19 혁명에 대한 계승의지가 분명하였고 5·16 쿠데타와 한일협정 및 베트남 파병 문제에 강렬하게 반대 의지를 밝힌 점에서¹⁰⁾ 『신춘시』가 ‘불온’한 세력으로 읽혔으리라는 추정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¹¹⁾ 당시 『신춘시』 동인이었던 이근배는 『신춘시』의 급작스러운 폐간에

8) 이승훈·이동하·박남철, 「1960년대의 시인들-오늘의 증견시인들을 해부한다」, 『문학과 비평』 봄 창간호, 1987, 128쪽.

9) 길혜민, 「1960년대 동인지 『신춘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6, 11~14쪽.

10) 박대현, 「1960년대 동인지 『신춘시』의 위상」, 『상허학보』 39, 상허학회, 2013, 266~277쪽.

11) 『신춘시』를 겨냥한 어떤 권력적 압력과 관련된 공식적 기록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당대 문단에서 김수영의 단편적이거나 때 호의적인 평가 있었지만 이후 거의 거론되지 않았고, 문학사에서 아예 제외되어온 저변에는, 길혜민의 주장처럼 『신춘시』의 불온성이 문학 담당자들의 자기 검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수영은 『신춘시』에 주목하면서 “실속이 있어서 확실히 전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權逸松의 「볼리비아의 旗手」를 위시하여 趙泰一의 「나의 處女膜」과 黃命 姜仁燮 李根培 申世薰 등의 여러 작품이 문학이나 종합지를 능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동인지의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반가운 일이다.”(김수영, 「윤곽 잡혀가는 詩誌와 同人誌들」, 1966.2. 『김수영 전집 2 산문』, 민음사, 2000, 366~367쪽). 또 다른 글에서 그는 “(『현대시』는:인용자) 순수한 同人誌의 성격을 굳게 하고 있고, 가령 『新春詩』지 같은 것을 대적적인 동인지로 볼 때 포멀리스트로서의 그 성격이 한층더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있는 것이 좋았다”(김수영, 「새로운 포멀리스트」, 1967.3. 김수영, 위의 전집, 399쪽)라고 밝힌 바 있다.

엮힌 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는데 이 또한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다.

1969년 어느 날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있는 강인섭이 불쑥 『신춘시』 동인들을 소집했다. 마침 박정희 정권에서 3선개헌을 밀어붙이려 해서 언론·학계 및 문화예술계까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를 때였다. 그는 많은 말을 생략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신춘시』는 그만 막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어딘가에 가서 무슨 일인가를 겪고 온 눈치였지만 우리들은 묻지 않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¹²⁾

이러한 언급은 『신춘시』의 ‘자진 폐간’이 사실상 ‘자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외부로부터의 모종의 압력이 작동한 결과였음을 암시한다. 『신춘시』는 문단권력으로 상징되는 “서정주로부터의 과감한 해방”¹³⁾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문단과 기성 문인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기 때문에, 문단 내로 편입하기에 꺾끄럽고 불편한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유를 막론하고 분명한 사실은, 『신춘시』 동인은 그간 문학사에서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춘시(新春詩)』는 1963년 4월부터 1969년 12월까지 총 19집에 이르는 활동을 이어간 실제 ‘있었던’ 존재들로, 강인섭, 강인한, 강희근, 권오운, 권일송, 김원호, 김종철, 노익성, 박봉우, 박이도, 신명석, 신세훈, 윤삼하, 이가림, 이근배, 이탄, 장윤우, 조태일, 채규판, 황명 등의 시인이 활동한 참여시 계열의 시 전문 동인이다. 학계에서는 2010년대 들어서서 『신춘시』에 주목하는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소개한 길혜민을 비롯하여 박대현, 유창민 등은 1960년대 현실 참여적 성향이 강했던 동인지 『신춘시』를 학계에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한 공적이 인정된다.¹⁴⁾

12) 이근배, 「60년대의 비문을 읽으며」, 『시인세계』, 2006년 봄, 2006, 6쪽.

13) 홍기삼, 「서큐레이션에 있어서의 전진들」, 『신춘시』 15집, 1968.10, 685쪽.

14) 박대현은 최초로 『신춘시』에 주목하였고 “참여적 성향을 투쟁적으로 강화해나간 『신춘시』의 전위적 측면을 밝히며 1960년대 시 연구가 『현대시』 동인에만 편중되어 왔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유창민은 『신춘시』가 “혁명 체험을 통한 세대적 동질감”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현실 비판의 정신을 획득했다고 보았다. 박대현, 앞의 논문, 254쪽; 유창민, 「1960년대 『신춘시』 동인의 세대 의식 연구」, 『겨레어문학』 제61집, 겨레어문학

본고는 1960년대 시 문학사를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러한 시도의 일단으로서 『신춘시』 동인 가운데 ‘권일송’ 시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3년 이래 『신춘시』 관련 논문이 4편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핵심 동인들에 관한 개별 논의는 전무하다.¹⁵⁾ 『신춘시』를 거쳐 간 동인은 총 29명이지만 동인수첩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시인은 20여명이고, 특히 1집부터 19집까지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핵심 동인은 강인섭, 김원호, 박봉우, 박이도, 신명석, 신세훈, 윤삼하, 장윤우 등에 이르는 데, 권일송도 여기에 속한다. 권일송(權逸松: 1933~1995)은 1933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으며 광주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1956년 전남 목포시 영흥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1957년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시 「불면의 흥장」, 「강변이야기」가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1960년 전남도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주지한바, 1963년부터 윤삼하, 황명 등과 함께 『신춘시』 동인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제1회 소청문학상(1983), 제8회 현대시인상(1985), 순창군민이 주는 상(문화장, 1988)을 수상하였다.¹⁶⁾

권일송이 시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시대는 단연 1960년대다.¹⁷⁾ 1957년

회, 2018, 206~207쪽.

15) 박봉우 관련 논문은 여러 편 제출되었지만, 시집 『후전선』(1957)과 함께 1950년대 ‘전후 시인’이라는 틀로 조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60년대 작품에 주목한 논문으로 박봉우의 시와 김수영 시를 비교한 김사홍의 「김수영과 박봉우 시의 현실인식 변화 연구 - 4·19 혁명을 전후하여」(『비평문학』 54, 한국비평문학회, 2014, 65~93쪽)를 꼽을 수 있으나 『신춘시』 활동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16) 권일송의 이력은 각 시집의 작가 소개를 참고하였다. 2003년 11월에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순창지부와 권일송시비건립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그의 고향 순창에 시비가 세워졌다고 한다.

17) 권일송은 제1시집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한빛, 1966)에서 시작하여 『도시의 화전민』(한빛, 1969), 『바다의 여자』(국제, 1982), 『바람과 눈물사이』(홍익, 1987), 시선집 『비비추의 사랑』(지성, 1988), 『바다 위의 탕고』(삼성, 1991), 『숲은 밤에도 잠들지 않았다』(영하, 1994)까지 총 7권의 시집을 간행하였다. 산문집으로는 『항해지에서 온 편지』(현대문학사, 1973), 『이 성숙한 밤을 위하여』(지소립, 1978), 『생, 왜 사랑이어야 하는가』(을지, 1979), 『사랑은 허무라는 이야기』(삼성, 1980), 『우리들의 시대를 위하여』(진우, 1985), 『미완의 길목에서』(삼성, 1990), 『슬픔을 가르칩니다』(보성, 1990)등 7권이 있으며 그 외 『한국현대시의 이해』(국제출판사, 1981), 『윤동주 평전』(민예사, 1984)을 출판하였다.

신춘문예로 등단했지만 60년대를 대표하는 『신춘시』 동인으로 참여하며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했으며 발표된 작품을 모아 첫 시집의 발간이 이루어진 것도 1960년대였다. 1960년대 출판된 두 권의 시집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1966)와 『都市의 火田民』(1969)은 시인 특유의 시적 정신을 내장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권일송은 사실상 시를 단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절필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70년대에 출판된 3권의 산문집들, 『항해지에서 온 편지』(1973), 『이 성숙한 밤을 위하여』(1978), 『생, 왜 사랑이어야 하는가』(1979) 등에서 확인되는 바, 권일송이 차선으로 선택한 장르는 ‘수필’이었다. 권일송은 1982년 비로소 세 번째 시집 『바다의 여자』를 출판했는데 1960년대와는 사뭇 다른 ‘에로티시즘’의 세계를 보여주었고, 이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는 권일송의 작품 세계에 있어 일대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장르적 전환에 앞서 증대한 어떤 정신적 움직임 내지는 감정의 소용돌이, 견잡을 수 없는 수치(羞恥)의 정동(情動)이 이미 1960년대 시 텍스트에서 감지된다는 점에 있다.

본 논문은 권일송이 70년대 시를 쓰지 못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강렬한 내적 힘들의 ‘마주침’으로부터 비롯되었으리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의 초기 시에서 ‘1960년대’가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구명하고자 한다. 정동(情動, affect)은 최근 문화연구, 사회학, 문학, 철학, 예술, 미디어,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일상’이라는 영역을 중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체가 아닌 ‘감정에 휩쓸리는’, ‘불확실한 주체’를 부각시킨다.¹⁸⁾ 정동은 몸과 정신의 이분법에 근거한 서구적 인식론을 해체하고 몸에 대한 우위를 누리던 정신이 아닌, 반대로 정신이 몸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면서 고정되지 않은 ‘되기’, ‘이행’, ‘지속’ 등을 통해 잠재성과 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¹⁹⁾ 또한

18) 김지영, 「오늘날의 정동 이론」,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00호, 2016 봄, 2016, 360~362쪽.

19) 위의 글, 362~363쪽.

정동은 무엇보다 “행위를 하는 능력과 행위를 받는 능력의 한가운데서”, 즉 “사이^{in-between-ness}의 한가운데서”²⁰⁾ 발생한다는 점에서 몸과 몸, 인간과 비인간 내지는 신체와 부분 등의 충돌, 분출, 울림 등 ‘마주침’을 조명함으로써 정서(emotion)와 변별된다.²¹⁾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정동 개념은, 정동을 아예 정신과 분리된 ‘신체적 관념’으로 명명하며 ‘예측 불가능한’, ‘전의식적’이고 ‘비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마수미, 세즈워 등의 이론과는 거리를 둔다.²²⁾ 문학 텍스트 해석에서 의미화의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느끼고, 글쓰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점”²³⁾에 착안, 특히 수치의 정동과 결부된 ‘수치의 글쓰기’가 어떻게 윤리적 실천의 일부가 되는지 해명하는 장면에 주목하고자 한다.²⁴⁾ 정동에 내재한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성과 매개성, 그리고 쓰기의 문제는, ‘1960년대’라는 시대와 감각적으로 소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당대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권일송의 작품 해석에 유용한 참조점이 된다. 권일송은 시작(詩作)에 대해 “어찌하여 그 허구한 날, 나는 즐겁고 벽찬 頌歌를 부르지는 못했던 것일까. 사랑은 노상 暴力으로 대답되고 성실은 嘲笑와 斜視속에 짓밟혀 와야 했던 나날, 나의 人生도 결국 無意味했다. 몸살날 만큼 답답하고 無意味했다. 이 책은 그것을 위한 노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조롱과 사시속에 짓밟혀” 있다고 ‘느끼고’, 심지

20) 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6, 14쪽.

21) 위의 책, 15쪽.

22)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43쪽; 이정화, 「수치의 젠더 정치학: 존 쿣시의 『치욕』의 예」, 『인문학연구』 제56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08쪽.

23) Shaviro, Steven, "Pulses of Emotion: Whitehead's 'Critique of Pure Feeling'", *The Pinocchio Theory*, <http://www.shaviro.com/> (accessed 1 July 2007, p.8(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앞의 책, 38쪽에서 재인용).

24) 엘스페스 프로빈, 「수치의 쓰기」,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126~159쪽.

어 그것은 “몸살날 만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썼고, 자신의 ‘시’를 “그것을 위한 노래”라고 규정한다. 어쩌면 이러한 장면에서 언급되는 ‘그것’이야말로 ‘수치(羞恥)’의 정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동에 의한 미묘한 정서적 ‘떨림’의 포착은 애초에 ‘시적인 것’의 핵심이며 “시는 늘 ‘정동’에 대한 텍스트였다”²⁵⁾는 지적처럼, 새로운 이론으로서의 정동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권일송의 시를 기존 정서 개념 대신에 ‘정동’을 통해 조명하는 것은 ‘1960년대’라는 하나의 상징적 세계와 주체의 지속적인 ‘마주침’에 천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수영이 부정한 대상을 타기하는 결백한 주체로서가 아닌, 부정에 연루되었다고 간주하는 주체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세웠듯이²⁶⁾, 권일송 시에서 ‘수치’는 1960년대와 매우 긴밀한 연결망을 지닌 정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일송 연구는 단순히 『신춘시』 동인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궁극적으로 1960년대 현실 참여적 경향의 시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고 새로운 시문학사의 구성으로 연동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권일송의 시에서 주체가 1960년대를 재현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권일송이 지향했던 시적 정신이 끊임없이 1960년대와 조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마주침’을 통해 파생되는 강렬한 내적 힘들이 ‘수치’의 정동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혁명 정신의 좌절과 잔혹한 낙관주의의 종언

권일송은 첫 시집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의 구성을 설명하면서 “二部엔 抵抗編으로 된 웬만큼 나의 본류에 該當한 작품들을 편의상 이렇게

25) 함돈균, 「한국문학사 또는 한국 현대시와 정동(affect) 담론의 양태들」, 『상허학보』 49집, 상허학회, 2017, 80쪽.

26) 조강석, 「1960년대 한국시의 정동과 이미지의 정치학(1) - 김수영의 경우-」,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64쪽.

읽어 보았다.”²⁷⁾라고 밝힌다. ‘저항편’의 시편들이 “나의 본류에 해당”한다고 짚어 말하는 장면에서 확인되듯이, 그는 시인으로서는 자신의 위치를 주저 없이 ‘저항’에 정위한다. 그러므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 자신의 시적 정체성을 ‘저항’으로 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동시대 여러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성취한 4·19 혁명과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공표하는 것이다. 권일송은 1963년 『新春詩』 창간호에서 “4월은 진정 무덤이 빛나는 달 / 새로운 깃발의 시원을 위해 / 죽음속에 부활의 눈을 뜨고 (...) 무덤은 빛나라라. / 역사와 내일의 찬연한 모성에 / 젖는 육십년 힘센 / 갈망은 빛나라라”(“무덤은 빛나라라”)²⁸⁾라고 노래하며 4월 혁명의 계승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4·19 혁명은 개인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과 체제의 변혁을 꾀한 상징적 사건이다. 따라서 혁명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을 수호하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바로 잡고 ‘새로운 역사와 내일’을 추동하는, 변혁과 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권일송의 혁명 정신은, 제3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시기 저항담론을 주도한 진영의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를 표방하며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²⁹⁾ 제3세계의 혁명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설 대안으로 각광받았고 이는 김수영과 신동엽 등이 지향했던 시 세계의 중핵이었다.³⁰⁾ 특히 1964~1965년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국면에서 미국과 일본에의 경제 ‘예속론’이 심각하게 제기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알제리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신민족주의’가 부상한 것이다.³¹⁾ “신생

27) 권일송, 「後記」,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한빛, 1966, 136~137쪽. 강조 인용자, 이하 생략.

28) 권일송, 「무덤은 빛나라라」, 『新春詩』 1집, 1963.5, 8쪽.

29) 박지영, 「제3세계로서의 자기 정위와 ‘신성’의 발견-1960년대 김수영·신동엽의 시에 나타난 정치적 상상력」, 『반교어문연구』 39, 반교어문학회, 2015, 472쪽.

30) 신동엽은 남한 사회의 후진성을 신식민주의, 제국/피식민의 문제로 이해하였고 이를 반제, 반전, 평화(민족통일)의 담론으로 극복하려 한 반면, 김수영은 후진성의 원인을 ‘자본주의’로 보고 이를 에로티즘과 자연의 신성성을 통해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위의 논문, 508쪽.

31) 김건우, 「「분지」를 읽는 몇 가지 독법 -남정현의 소설 「분지」와 1960년대 중반의 이데올

국들은 반제국주의 내지 반식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는 마당에서 '신식민주의의 타파'라는 행동강령을 내걸었다"32)는 것, 즉 우리의 민족주의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는 박정희 정권의 지배 담론인 성장우선주의와 반공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방식이었다. 예컨대 김수영이 "동양의 후진국으로서의 역사의식을 체득한 지성"33)을 강조하는 장면은, 제3세계 인식으로 '저항담론'을 구축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권일송의 혁명 정신은 제3세계 인식과 다음과 같이 만나고 있다.

당신은 石川達三 / 꽤는 이름있는 <니홍>의 작가이지만 / 그 작가란
다름 아닌 / **핏줄 얽힌 따뜻한 공감으로써** / 어려운 산과 바다를 넘고 헤쳐 / **인간끼리의 신뢰와 합의의** / **더운 손 닿을 때까지, / 마음으로 울고 손으로 저항해가며** / 결코 우리와 멀리 嫉視해가며 / 존재할 수 없는 이름이었음을 / (...) 당신에게만은 / 그렇게 허술히 느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 그런 못난 軍閥의 後裔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것은 / **憎惡 대신의 사랑이란 것 / 疎外 대신의 믿음이란 것** // (...) 수풀같은행진 속에 단 한 사람 <볼리비아>의 選手가 / 가난한 제 나라 國旗를 불안으며 / 걸어 들어왔을 때, / 그의 좁은 어깨 위에 / 조국과 깃발이 호올로 빛날 때 / (...) 채워지지 않을 그 거대하고 / **장엄한 고독을 위해 ……**, / **당신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 (...) <볼리비아>, / 그 서러우나 늠름한 하나의 깃발처럼 / **우리의 詩와 세계가 빛나고 / 속으로 뜨겁게 맺어질 날을 위하여** / 언제까지나 이 明暗의 十月을 / 기억하며 살자고 石川達三씨.

- 「볼리비아의 旗手」34) 부분

「볼리비아의 旗手」는 일본작가 이시카와 다쓰코(石川達三: 1905~1985)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작품이다. 이시카와 다쓰코는 비록 일본인 작가

로기들에 대하여」, 『상허학보』 31집, 상허학회, 2011, 261쪽.

32) 이기원, 「신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갈등」, 『청맥』, 1965.3. 67쪽, 70쪽(위의 논문, 262쪽에서 재인용).

33) 「새로운 포멀리스트」, 1967.3. 김수영, 앞의 전집, 400~401쪽.

34)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49~59쪽.

이지만 “못난 軍閥의 後裔 같은 생각이 안 드는” 작가라고 서술되는데, 그 이유는 ‘증오’와 ‘소외’ 대신에,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권일송은 수필 「이 기수(旗手)를 보라」에서 위의 시가 10월 11일자 『아사히신문』에서 동경 올림픽 개회식 입장 사진과 함께 실린 이시카와의 에세이 「개회식에서 생각한다」를 읽고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³⁵⁾ 자랑할 국가나 기댈 권력도 없이 혼자서 입장하던 볼리비아의 기수를 바라보며 벽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시카와의 글에서, “국가와 국경과 정치적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바로 인간의 고귀한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려는 한 작가의 격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시 「볼리비아의 기수」는 1964년 10월 10일 개막식 풍경을 묘사하면서 그 화려한 축제의 현장에서 ‘가난한 제 나라 國旗를 붙안으며’ 걸어 나오는 고독한 볼리비아 기수의 모습을 조용히 응시한다.

이 시의 주제는, 이시카와가 보여준 ‘뜨거운 인간의 내일을 보듬는’ 시선을 역으로 ‘볼리비아의 기수’를 통해 체득한다. 볼리비아 기수는 홀로 인간의 ‘장엄한 고독’을 떠안고 이를 현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때문에 그를 지켜보며 이시카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시의 주제인 ‘나’도 그 울음에 뜨겁게 공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울음을 통해 비로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볼리비아의 깃발은 ‘늠름한’ 모습으로 빛을 발한다. 이때 ‘나’와 당신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은,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이다. 권일송이 포착하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사랑의 정신에 대해 김수영은, “무엇이라고 격찬해야 좋을지 격찬할 말을 모르겠다”며 상당히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인다.³⁶⁾ 「볼리비아 기

35) 권일송, 「이 기수를 보라」, 『이 성숙한 밤을 위하여』, 지소림, 1978, 116~117쪽. 권일송은 “국경을 초월한 따뜻하고도 감격적인 그의 휴우머니즘, 무릇 인간의 현실을 파괴하고 올가미를 씌우려는 정치악에 대한 과감한 항의의 육성”을 들었다고 고백한다. 이후 권일송은 시를 번역하여 일본으로 보냈으며, 이시카와와 서신을 종종 교환하며 문학적 영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시카와는 중일전쟁을 종군하며 쓴 소설, 『살아있는 병사』에서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다루며 윤리적인 태도를 보여준 작가로 유명하다. 박세영, 「이시카와 타츠조오(石川達三)의 문학 연구: 『살아있는 병사(生きている兵隊)』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1, 한일군사문화학회, 2003, 133~155쪽.

36) 김수영은 “특히 權逸松의 <도쿄올림픽의 石川達三씨에게> 부친 인류의 미래상을 노래한

수」가 주는 감동은 '때묻지 않은 진정성'과 '인류의 미래상'³⁷⁾을 발견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김수영의 평가에는 "인류의 미래상"을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한국시의' 진정한 '정신'이 되어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비록 상대가 역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작가이지만 제3세계를 향한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국가와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넘어선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시의 전언이, 1960년대의 혁명 정신, 즉 저항시의 방향성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성부가 「볼리비아의 旗手」에 대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힘이 있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³⁸⁾ 「볼리비아의 기수」는 사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특정 대상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한데, 이러한 방식은 흡사 '謝肉祭'와 같은 풍경이 자행되는 월남전(越南戰)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베트남 수장 '구엔·카오·키'를 호명하는 시 「首相 「구엔·카오·키」씨에게」로 변주되기도 한다.

「靑龍」과 「猛虎」와 「비둘기」의 나라 / 大韓民國의 우리들도 / 자유를
위한 당신의 戰列에 앞장서 / 高句麗의 더운 낮을 아낌 없이 / 뿌리고는
있으나 / 그러나 사이공 市街의 바나나 값을 / 묻고 싶어하는 나의 손은
/ 왜 이리 자꾸 떨리기만 하는 것입니까 // (...) 빌거니 / 慈曇寺 깊은 골
<후에>의 城郭에서 / <아오자이>를 입은 南國(남국)의 여인들이 / 더위를
피해 시원한 주스를 드는 / 거리의 自由 市場 부근의 露店(노점)에서 /
(...) 다투어 힘센 자유의 기폭 위한 / 노래와 喊聲(함성)들이 터져 나
를…… // (...) 一九六六年 세계의 모든 / 어린이들의 여름 放學과 / 겨울
의 샌터클로즈 할아버지 / 그 선물 상자와 썰매의 바퀴들은 / 모두 두려

과감한 시 「볼리비아의 旗手」는, 평가로서는 이러한 때묻지 않은 진정한 시의 제시를 무엇이라고 격찬해야 좋을지 격찬할 말을 모르겠다. 이런 시를 앞에 놓고는 시의 기교문제 같은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략) 이 귀절에서도 보이듯이 군데군데 말발이 어색한 듯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흠점은 이 시가 주는 전체적인 감동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韓國詩精神 만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37) 김수영, 「시월평」, 앞의 전집, 367쪽.

38) 이성부, 「개인의 초극」, 『문학과지성』, 1973. 겨울. 820~827쪽.

워 떨며 /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 <보랏빛 머물러>의 東南아시아
 / 수령을 날으는 고뇌의 불꽃 더미 / - 首相 「CHAOS KEY」씨여.
 - 「首相 「구엔·카오·키」씨에게」³⁹⁾ 부분

‘구엔·카오·키’(Nguyễn Cao Kỳ: 1930~2011)는 월남 최초 공군조종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1965년 6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남베트남 수상으로 나라를 이끈 인물로 1975년 사이공 함락이 임박했을 때 미국으로 망명한다.⁴⁰⁾ 권일송이 남베트남 수상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박정희 정권 당시 한국군 파병이 결정되었고 1964년 최초 비전투 요원 140여명 1차 파병에 이어 1965년 2차 비전투요원(비둘기부대) 2천여명 파병, 3차 전투부대 제2해병여단과 수도사단 맹호부대 약 2만여명 파병 등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⁴¹⁾ 미군 지상군의 원조를 받고 있었던 한국의 입장에서 베트남 파병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체념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1966년 재차 2만여명 4차 추가파병이 요구되었을 때조차 ‘증파동의안’이 신속히 처리되면서, 방청 문인들로부터 “정말 이견 너무하지 않은가”와 같은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⁴²⁾ 베트남 파병 문제는 ‘반공주의’, ‘국위선양론’, ‘미군철수론’과 결부되어 선전되었기에 상당수 지식인은 크게 반발하지 못한 반면, 『신춘시』 동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실제 참전했던 신세훈을 중심으로 강인섭, 강인한, 권일송 등은 제3세계로서 남한과 같은 처지인 ‘약소민족’ 베트남인과 전쟁을 하며 이틀테면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개진한다.⁴³⁾ 권일송의 위의 시도

39)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103~108쪽.

40) “응우옌까오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91%EC%9A%B0%EC%98%8C%EA%B9%8C%EC%98%A4%EB%81%BC>> (검색일: 2020.1.5.)

41) 한홍구, 「전쟁과 동원이데올로기-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3, 125~127쪽.

42) 이호철, 신동문, 박경리 등은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방청하고 그 방청기를 실었는데, “엄청난 무관심”과 “깨끗이 체념한 듯한 인상”으로 국회의원들을 묘사한다. 박경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는 거룩하기보다 눈물겹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위의 논문, 128~129쪽 재인용.

43) 박대현, 「‘난해한 공화국’의 시인들 -1965년 체제와 <신춘시>의 문학적 분투에 대하여」,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284~294쪽.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시의 주체는 청룡, 맹호, 비둘기부대 등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한국 군인들도 온 힘을 다해 “자유를 위한 당신의 戰列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중반부 “그러나”에서 시작한다. 그는 “사이공 市街의 바나나 값을 / 묻고 싶어하는 나의 손은 / 왜 이리 자꾸 떨리기만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며, 전쟁이 평범한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어린이들의 즐거운 방학과 성탄절을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이 “비극과 忿憤의 緯度”, “殺戮의 정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자유’는 단순히 위정자들의 정치 놀음이 아닌 거리와 시장의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전언이다. 권일송이 보여준 제3세계 민족민주 혁명 정신은 ‘볼리비아’, ‘베트남’ 등 제3세계 국가에 관한 사유를 경유하면서 나타난다. 이로써 권일송 시의 혁명 정신은 4·19로 상징되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향한 적극적인 지향, 이를테면 무엇보다도 인간을 억압하는 것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물론 이거니와 일체의 폭력적 세력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에 대한 보편주의적 사랑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편지 보내기의 방식은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전제로 깔리지 않아서는 불가능한 시적 행위이다. ‘구엔·카오·키’의 이름을 ‘Cao Kỳ’가 아닌, ‘CHAOS KEY’라고 부르는 것도 그가 이 비참한 혼돈을 끝마칠 결정적 계기가 되어 주리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비록 지금은 참혹한 전쟁이 한창이지만 결국 평화를 되찾으리라는 믿음,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반목,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를 희구하면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이러한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결코 다르지 않으리라는 확신. 이러한 사유들은 당대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국내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잔혹한 낙관주의’⁴⁴⁾에 가깝다. 중국에는 평화를 회복하리라는 믿음과 경제적 안정에 대

44) 로렌 벨렌트는 모든 애착이 낙관적(optimistic)이라고 말한다. 낙관주의 속에서 주체는 약속들에 기대고자 하는데, 그것이 비록 실현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욕망의 대상(장면)이 주체들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해도 상실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이다. 로렌 벨렌트, 「잔혹한

한 기대는 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순전히 환상에 불과한, 낙관주의적 애착과 접목된 것이다.⁴⁵⁾

그러나 “집 없는 사람들도 와서 / 고단한 한 날의 시름을 씻어 가며 / 가슴에 종이 강물을 출렁이며 살아가는 곳”(「鶴洞의 노래」⁴⁶⁾)이나, “의로운 사랑들이 밤이면 / 풍성히들 자라고 있을”(「배따라기」⁴⁷⁾) 이상적 장소를 꿈꾸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허황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욕망들이다. 불행한 삶을 직시하고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 대신에 선택한, 이상적 세계가 중국에는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을 버티는 힘과 가능성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차마 그렇다. 예컨대 「開拓의 원발과 新紀元의 노래」⁴⁸⁾에서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35억 전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건이자 “개인과 組織의 온갖 非理의 사슬을 풀고 / 낚고 비좁은 國家主義와 온갖 / 질곡의 창살을 뚫쳐 나”오는 계기로 형상화되고 있다. 달 착륙이란 과학적 기술의 성과를 넘어 “7월의 言約속에 마음의 革命”을 다짐하는 순간으로까지 격상된다. 이러한 시편들은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자 애쓰고 혁명의 유산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담고자 노력한 시들로 이해된다.

그러나 애초에 1960년대 4·19 혁명은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었다. 연이어 일어난 5·16 쿠데타에 의해 혁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실제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4·19는 ‘혁명’이 아닌 ‘의거’로 격하되었다.⁴⁹⁾ 권일송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격렬한 우주전쟁의 결과였을 뿐이다. 주체가 공감을 바탕으로 간절하게 ‘우리의 순간’을 꿈꾸고 휴머니즘적 세계의 실현을 욕망하는

낙관주의’,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6, 161~164쪽.

45) 위의 책, 162쪽.

46)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127~130쪽.

47)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124쪽.

48)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41~45쪽.

49) 임규찬, 「4월혁명의 기억과 글쓰기 -문학 속의 4·19, 특히 소설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2집, 한국작문학회, 2011, 77쪽.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낙관주의적 기대는 시작되는 순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 베트남 전쟁은 갈수록 확산되며 수많은 사상자를 낳으며 정당성을 상실한 죽음의 공간이 되었고(「파이한 變奏曲」⁵⁰), 「돼지의 眞實앞에 서서」⁵¹),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한 남한의 현실에서는 “한 조각 빵도 안 되는 의지와 / 거치장스런 主義와 未來 파이”(「主抵抗線」⁵²)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다. 다시금 “4월이 돌아온다”고 선언하지만, 혁명을 기억하는 “거리에는 亂叫聲 / 넘치는 주먹과 독선”이 넘치고 “악덕한 밤의 요사스런 그림자가 / 혁명 공화국의 불 꺼진 철조망을”(「絶糧 地區」⁵³) 불길하게 서성이고 있을 뿐이다. 혁명은 불길한 그림자로 되돌아온다. 권일송 시의 주체는 혁명 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려고 애쓰지만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세계, 잔혹한 낙관주의가 종언된 세계에 도달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1960년대 역사적 사건의 재현과 ‘폐허의 조국’

낙관주의가 종언된 현실에서 사실상 가능한 것은 ‘허무주의’일 뿐이다. “모든 것 가버렸습니다 / 齒車로 돌던 장미의 꿈도 / 무작정한 방향의 소리

50) “베트남에 / 가 있는 / 내 친구 / ROTC 申少尉가 / 目撃한 / 굳어버린 兵士의 / 性器를 위하여 / 나의 가을과 詩는 / 脆弱하다.”라고 노래하며 『신춘시』 동인 신세훈을 등장시킨 작품이다. 전쟁의 죽음 앞에 유약한 시가 병치되며 비장미가 감돈다.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22쪽.

51) “울며 지낸 젊은 파이한의 詩人들 / 깡통소리의 殺意와 悔恨으로 변두이는 / 「越南戰爭論」의 첫 귀절을 사랑하고”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파이한의 시인들’은 베트남 전쟁 가운데 왜소한 모습으로 등장한다(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29쪽). 특히 여기 언급된 「越南戰爭論」은 신세훈의 시 제목이다. 「월남전쟁론」의 첫 구절은 “우리끼리 싸운 것도 세계에 부끄러운데 / 이게 무슨 꼴이야, 무슨 책피야. / 북한에선 월맹에 군대를 안 보냈는 게 마땅했어. / 남한에서 먼저 파월 시켰으면” 등과 같이 매우 직접적으로 월남전 파병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월남전쟁론」, 『신춘시』 13집, 1968.5, 42쪽.

52)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24~27쪽.

53)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76~80쪽.

랑도 / 退朝되어가는 第五共和國의 발목 위에 / 소리없이 교교히는 버려졌 습니다”(「갈대의 裸像」54), “모든 것이 흐르는고나 / 밝음이라고 믿었던 / 온갖 眞理와 그리운 편지들이”(「라스트 포엠」55) 등의 구절에서 노래하듯이, 권일송 시의 주체는 자신이 신뢰하던 가치가 무너진 현실을 노래한다. 이때 주체의 내면을 강하게 사로잡는 정서는 ‘상실감’이다. 그런데 그러한 지독한 상실감 속에서도 ‘모든 것’, ‘꿈’과 ‘밝음’, ‘진리’가 다른 곳이 아닌 “第五共和國의 발목 위에” 버려졌다고 말하는 구절은, 현실 감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이후 깊은 허무주의로 침잠해 들어가는 대신 그가 택한 방식은 추악한 ‘돼지의 진실’을 대면하고 그것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돼지의 眞實(진실)앞에 서서」56). 권일송의 시에서 유독 1960년대 특정 사건을 재현하는 작품들이 눈에 띄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요 사건을 직접적으로 취하며 작품화하려 노력한 시인 특유의 정신과 결부되어 있다.

戰爭은 非論理이고 政治는 優位에서 인간의 바닥가지를 壓倒하고 知性은 황혼에 뿔어지는 우수의 담배 연기 같은 것, 그 온갖 挑戰의 要素들 앞에서 시련받는 無垢한 자의식과 내면의 술한 진실들, 나의 詩는 이렇게 해서 流動적이고 時事的 측면에서 그 原點을 찾고 전체의 환상의 營爲에서보다는 구상적인 事象 내지는 事件에서 그 主體意識을 착수해 가며 안이한 감상과 復古의 打令을 경계해 왔다. (…)
「詩人은 非詩的 存在」라 했던 「존·키츠」의 말을 노상 떠올리며 나는 지금도 詩 아닌 詩와 거리와 朝刊 三面的 일상적 騷音을 더욱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57)

‘전쟁’과 ‘정치’는 무거운 무게감으로 인간을 ‘압도’하는 온갖 불의의 조건들이다. 인간을 옥죄는 폭력적인 사태들 앞에서 지성(知性)은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지만, 그러나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은 “내면의 술한 진실들”을 목

54)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86~87쪽.

55)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88~89쪽.

56)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28~29쪽.

57) 권일송, 「後記」,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136~137쪽.

도하게 만든다. 권일송은 시의 방향성을 '환상적'인 것들과 결별하고, “時事的 측면에서 그 原點을 찾”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구상적인 事象 내지는 事件에서 그 主體意識을 착수해 가며 안이한 감상과 復古的 打疊을 경계해 왔다”고 제시한다. 추상적인 감상과 복고주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분명한 형태를 지닌 '구상적인 사상'과 '사건'만이 중요해지고, 따라서 그는 ‘詩 아닌 詩’와 ‘거리’, ‘朝刊 三面的 일상적 騷音’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밝힌다. 차라리 그는 ‘非詩的存在’(존 키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조간신문의 특정 기사를 연상하게 만들거나 역사적 사건 가운데 특정 장면을 은유적으로 포착한 작품들은, 이러한 의지를 적극 실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江原道の 丹楓 잎은 / 피 보다도 진하다 // 어쩌다 잘못 살아 온 / 陋名의 청춘들이 / 모닥불을 피우며 // 亡命政府의 閣僚들 처럼 / 서로의 悲慘을 / 쓰다듬고 있는 자리 // 愛山里에, / 柳坪里에, / 文谷里에, // 따뜻한 奈落과 蹂躪의 골짜기 / 處刑된 달이 짓는 朝陽江 기슭, // 金 필레몬의 무덤이 / 바람속에 험험히 / 눈 먼 코스모스를 달레는데 // 馬車嶺, / 海拔 六二〇 高地-, / 虐殺의 겨울은 / 肅肅히 발 아래 밀리고 // 旌善 땅 / 라이언 샤-벨에 / 抗議와 榮光에의 參與, // 가을이 코스모스 …… / 流謫에 우는 蜀鳥.

- 「코스모스의 反逆-六二年의 蠻地와 靈歌」⁵⁸⁾ 전문

「코스모스의 반역」은 1963년 『신춘시』 3집에 발표될 당시의 내용과 시집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⁵⁹⁾ 삭제, 수정된 구절들은 ‘不義’와 연관하거나 대체로 구체적 지명들인데, 애산리, 유평리, 문곡리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들이며 조양강도 그 부근을 흐르는 강 이름이다.⁶⁰⁾ 이러한 지명들은 이 시의 배경으로 강원도 ‘정선’을

58) 권일송, 「코스모스의 反逆」, 『신춘시』 3집, 1963. 11. 35쪽.

59) 분석은 『신춘시』 게재본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다. 시집에 수록될 때는 처음 발표될 당시의 부제인 “六二年의 蠻地와 靈歌”가 아예 지워지고 “愛山里에, / 柳坪里에, / 文谷里에, // 따뜻한 奈落과 蹂躪의 골짜기 / 處刑된 달이 짓는 朝陽江 기슭,”, “抗議와 榮光에의 參與.” 등의 구절이 삭제, 수정되었다.

특정한다. ‘강원도 정선 마차령 해발 620리 고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5·16 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전국토의 효과적 개발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만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를 동원한 ‘국토건설단(國土建設團)’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1962년 3월 15일부터 약 1만4천여명이 건설단원으로 소집되었고 도로공사, 철도공사, 선로공사 등 다양한 국토개발에 투입되었다. 병역미필자였던 권일송은 이 가운데 강원도 정선선 철도공사를 맡았던 제3지단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¹⁾ 정선이 ‘야만의 땅(蠻地)’으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건설단은 유독 고학력자가 많았고 특히 제3지단 산하 28건설단의 경우 70%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전해진다.⁶²⁾ 평소 육체노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인지라 작업능률이 떨어졌고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가 속출하였다. “어찌다 잘못 살아 온 / 陋名의 청춘들이”라는 구절에서는 “잘못 살아” 왔다는 후회와 자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부당한 “누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명이 뒤섞여 있다. 병역기피가 강제동원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행한 상황에서 청춘들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서로의 비참을 / 쓰다듬고” 있지만, ‘나락’, ‘유린’, ‘처형’ 등의 시어는 그런 위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절망적 분위기를 암시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극진하게 환대했던 착한 농부 ‘필레몬’(Philemon)이라는 이름은,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전형일 것이다. 그의 무덤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한 선량한 개인의 말로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抗議와 榮光에의 參與”라는 구절은 이후 “피 돋는 榮光에의 參與”로 순화되어 시집에 실리지만, ‘국토건설단’의 부당한 건설사업 소집에 대한 항변의 메시지를 반어적으로 담고 있다. 한편, 1960년대 선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현한 다음과 같은 작품들도 있다.

60) 조양강(朝陽江)은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서 시작하여 정선을 가수리에서 동강(東江)과 합쳐지는 강이다.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03534&cid=40942&categoryId=33184> (검색일: 2020.1.5.)

61) 건설부, 『國土建設團 解編에 따른 合同調査報告』, 1963, 9쪽(한규한, 「5·16 쿠데타 직후 국토건설단과 지식청년 ‘군기잡기’」, 『역사비평』 111호, 2015년 여름호, 2015, 396쪽 참고).

62) 위의 논문, 405쪽.

(I) 이쪽이나 저쪽이나 - / 만일 이 쪽이라면 // 감감한 保守와 낡은 傲慢에게 / 돌아가 안기를 票가 된다면 // 안 된다 / 안 된다 / 죽어도 안 된다 // 스스로의 역사와 현실 위에 / 산 무덤의 桎梏을 / 입 벌리게 하는 // 한 票. // (II) 이쪽이나 저쪽이나 - / 만일 저 쪽이라면 // 두려운 전쟁과 배부른 기만에게 / 허술히 팔려 가는 票가 된다면 // 안 된다 / 안 된다 / 죽어도 안 된다 (...)

- 「한 票」⁶³⁾ 부분

(...) 내 눈이 만나는 汚穢의 도시와 事象들 / 病棟의 긴 복도와 夕刊의 삼면 기사 / 살구나무집 召蓮의 비단 눈물과 / 上司에게 바치는 당신의 떨리는 勳과 / 勳章이 소리나는 閣下의 헛기침과 / 記票所 안의 부러진 연필토막 // (...) 그것은 군중의 허위다- / 그것은 허위의 군중이다 - // 허위다 허위다 허위다 / 구역나는 최고의 추악한 가면극이다

- 「群衆은 虛僞다」⁶⁴⁾ 부분

「한 票」, 「群衆은 虛僞다」는 1963년 10월 15일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 곧바로 이어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을 염두에 둔 작품들이다.⁶⁵⁾ 이 선거들은 5·16 쿠데타 이후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며 만들어진 정치일정과 제도를 따른 것들이다.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었지만 윤보선 후보와 득표차는 역대 1, 2위 대통령 후보 간 득표차 중 가장 적은 15만 6,026표에 불과했다.⁶⁶⁾ 5·16 쿠데타 이후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야권이 민정당, 신정당, 민우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등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초래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국회의원 선거결과 민주공화당이 62.8%에 해당하는 110명으로 절대다수의석을 차지, 정국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하였고 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은 군소

63)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83~85쪽.

64)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92~95쪽.

65) 물론 이 외에도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8월 12일 제5대 대통령 선거, 1962년 12월 17일 헌법 제6호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많은 선거와 투표가 이어진 시기였다.

66) 『대한민국선거사』, 1968, 831쪽(이경준,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5쪽 참고).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통·반장 포섭, 당원 모집 등 민주공화당 조직력 강화에 사용된 ‘부정한 돈’들의 난무였다.⁶⁷⁾

「한 票」의 주체는 자신의 정당한 ‘한 표’가 절대로 “깜깜한 保守와 낡은 傲慢에게 / 돌아가 안기울 票”, “스스로의 역사와 현실 위에 / 산 무덤의 桎梏을” 가져올 표, “두려운 전쟁과 배부른 기만에게 / 허술히 팔려 가는 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선언한다. 그의 단언은 선거와 공정한 사회 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으나 투표결과에 의해 그러한 기대는 순식간에 무참히 무너져 내린다. 도시는 오염되고 병들었으며 “記票所 안”에는 “부러진 연필토막”만 나뒹굴고 있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혁명을 성취할 ‘민중’이 사라진 거리에는, “醜惡한 / 얼굴 없는 亡靈들의 行列”인 “허위의 軍중”만 남는다. 시의 주체는 “子息 놈에게 속으로 大統領이 되라고도 / 해 보았다가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나 / 되라 했다가 / 아니 아니 그런 大統領은 되지도 / 말렸다가 한번은 해볼 만한 것도 / 되었다가”(「大統領 타령」⁶⁸⁾)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권위를 전복하는데, 이러한 목소리에는 정치 제도에 대한 환멸이 고스란히 담긴다.

가을은 가을대로 무르익고 / 騷音은 騷音끼리 어울리는 / 某月 某日의
거리는 눈부셨읍니다 // 해도 기울어 泰山이 鳴動에 鼠一匹 / **사카린과
OTSA氏의 囑采들도 저무는 // 사람들은 鎧甲하고** / 아름다운 密輸는 三
角으로 / 성난 交尾와 糞尿는 絶頂에서 황홀한데 // 「링컨 · 콘티넨탈」 /
꽃 가루로 휘날리는 世宗路와 光化門通 / 「모킹 · 버드」의 흐르는 선율속
에 / 가난한 코리어의 밤 하늘 / 휘청거리는 沙漠의 언어들은 불타고 //
純金の 『보스톤 · 바울』과 白馬의 彫像 / **閣下들의 손 끝에서 세계의 우
정은 / 덩겁 뺏어지고 / USA 「로스 · 체스넛」이** / 이옥고 이 葉錢의 거
리와 지붕을 / 넘치며 그늘을드리울 // 아아 / 화려한 불빛 / 「**에머랄드
빌라**」의 玄關에서 / 우리가 쏟는 기쁨과 눈물의 의미를 두고 // 斗漢이
汚物보다 新鮮한것 더는 없는 / 풍과 기적이 얼룩져 和答하는 / 어려운

67) 위의 논문, 117~119쪽.

68) 권일승,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68쪽.

거리의 네 거리에 서서 / 某月 某日-, 最後의 詩人이며 / 당신은 아마 속
절없이 / 울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 曠野를 누비는 「모킹·버드」
와 / 메마른 「고향의 봄」의 그 旋律들 사이. //

- 「「모킹·버드」의 回顧」⁶⁹⁾ 전문

이 시에는 시인이 직접 달아둔 주석이 많다.⁷⁰⁾ 위의 시가 문제 삼는 사건은, “사카린과 OTSA氏의 囑采들도 저무는 // 사람들은 遁甲하고”에서 드러나듯이, 1966년 9월 15일 밝혀진 삼성이 막대한 이윤을 얻기 위해 공업용 사카린의 원료가 되는 OTSA를 불법 밀수한 사건이다. 이를 “아름다운 密輸”라고 구태여 언급하면서 상황의 불합리함은 강조된다. 삼성의 불법밀수는 법을 어기고 기업 정신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태였으나 무엇보다 이를 목인, 방조, 지원해준 박정희 정부와의 정경유착 의혹이 증폭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1966년 9월 22일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김두한 의원은 사카린 밀수 사건을 따지면서 국회에서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시켜 준 장관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장관들이 있던 자리에 똥오줌과 사카린을 던진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국회오물투척사건’인데, 이로 인해 김두한은 구속된다.⁷¹⁾

이러한 혼란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한국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로 10월 31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모킹·버드」의 回顧」는 존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주고받은 화려한 선물들과 그들이 타는 자동차와 그들이 즐겨듣는 음악들 선율 위로, 김두한이 투척한 오물의 이미지를 중첩시킨다. 「閣下들의 손 끝에

69)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8~19쪽.

70) 권일송은 시집 한 구석에 “◇「모킹·버드」: 존슨 美大統領(미대통령)이 좋아하는 텍사스 민謡曲(민요곡) ◇OTSA: 某財閥(모재벌)의 密輸品(밀수품)/漂白劑(표백제) ◇「링컨 콘티넨탈」: 존슨 美大統領의 專用乘用車(전용승용차) ◇「보스턴 바울」(白馬의 彫像): 존슨 美大統領의 朴大統領(박대통령)에의 선물 ◇「로스 체스넛」: 白壁館(백악관) 뜰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일정 ◇「에머랄드 빌라」: 〈위커 힐〉의 〈존슨〉 投宿房(투숙방) ◇「고향의 봄」: 朴大統領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民謠” 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19쪽.

71) 정운현, 「한국 비료 사건과 김두한 의원 오물 투척 사건」(1966년 9월 22일),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인문서원, 2018, 174~177쪽.

서 세계의 우정은 / 덩게 뗏어지고” 있지만, 실상 그러한 것은 “斗漢이 汚物보다 新鮮한것 더는 없는”, 그런 위장된 외교적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며 “똥과 기적이 얼룩져 和答하는” 거리에서 ‘진짜’ 현실을 대면한 시인은 “속절없이 / 울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시가 던져주는 메시지이다. 즉 이 시는 ‘똥오줌’보다도 더 추악한 현실과 아이러니하게도 ‘똥오줌’에 의해 비로소 대면하게 된 ‘기적’ 같은 진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물’에 관한 것이다.

권일송의 시에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은 역사가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국토건설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불법밀수사건, 존슨 대통령의 방한, 국회오물투척사건 등과 같은 1960년대의 역사적 사건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가 부대끼며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감각이, 그의 내밀한 목소리들을 통해 재현된다. 재현은 애초에 미메시스, 즉 모방, 모사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지만 단순히 시각적 묘사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다. 재현은, 특정 사건이 개인의 신체를 관통함으로써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⁷²⁾ 권일송의 시에 그려진 1960년대의 많은 역사적 사건은 시적 주체의 몸 에 각인된 것들이다. 「「모킹·버드」의 回顧」에서 중요한 것은 밀수사건이나 국회오물투척사건 자체가 아닌, 이러한 현장을 응시하는 주체가 ‘최후의 시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가 울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일송은 1960년대 역사적 사건을 상당히 충실하게 시적으로 재현하지만 이들 시편에는 눈물과 우울, 패배감과 좌절, 무력감이 팽배하다. “爆竹처럼 터지는 革命의 夕刊 위에 / 노상 수난의 손이 고르는 退色한 活字들 // 誤診된 세대와 焚刑 당한 청년을 위한 / 나는 애인과 집을 잃고 / 돌아오지 않은 편지와 함께 / 장미의 五月을 死産시키고 나면 //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⁷³⁾)라고 노래하듯이, 혁명은 석간

72)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311~317쪽.

73)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96~102쪽.

신문처럼 중지되었고 활자는 힘을 잃었으며 청춘은 처형당한다. 사랑은 끝났고 편지에 답장하는 이는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절망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는 “폐허의 조국”(「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을 발견할 뿐이다. 진실과 대면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사적 사건의 재현을 선택했지만, 이러한 방식이 현실을 돌파할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대면하고, “어려운 거리의 네 거리에 서서”(「모킹·버드」의 回顧) 그것과 만나고 이를 시로 쓰는 행위이다. 즉 권일송 시의 주체는 지속적으로 60년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들과 마주치고 있으며 그 마주침을 신체적 경험을 통해 재현한다. 그리고 이때 배태되는 패배감과 좌절감은 시 쓰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언어의 몰락’과 ‘수치’로서의 시 쓰기

권일송은 1960년대 많은 역사적 장면들을 시 속에 알레고리적으로 재현한다. 그러나 그러한 재현을 통해 도달한 장소에는 그가 지향하고자 했던 혁명 정신이 아닌, 눈물과 슬픔, 패배감, 좌절에 가까운 감정들이 가득하다.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정동들은 단순히 개인적 체험의 수준의 것이 아니다. 흔히 1960년대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4·19 혁명이 성공하고 3·15 부정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치러졌지만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이 전복되자, 혁명은 일종의 ‘죽음충동’으로 남았다고 지적된다.⁷⁴⁾ 4·19 혁명에 의해 만들어졌던 환상적 기준이 바로 다음 해 거짓말처럼 무화되는 경험을 하였고, 이는 “이른바 4·19 세대란, 인격분열

74) 박대현은 “4월 혁명을 의식하는 지식인들은 금제(禁制)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죽음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것은 해마다 일종의 제레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상황에서 죽음충동은 반(反)독재적인 곳에서 작동한다. 억압된 4월 혁명이 김주열의 시신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식인들의 시대적 반복강박이다”라고 지적한다. 박대현, 「4월혁명과 죽음충동 -1960년대 참여지식인의 정신사적 심층에 대한 시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4, 438쪽.

증의 극단적 양상 속에 함몰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 '무한 가능성'과 '무한 좌절'의 낙차에 직면한 깊ילות이었던 것이다.⁷⁵⁾ 라고 설명된다. 4·19 혁명은, 말하자면 '가능성'이면서 '좌절'이다.⁷⁶⁾ 권일송의 시에서 나타나는 양극단의 양상들, 즉 혁명적 정신의 지향과 좌절,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대한 의지와 무력감 등의 낙차는 그가 4·19 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권일송은 1960년대를 일컬어 “60年代는 분명 나에게도 하나의 變革과 試鍊의 계절⁷⁷⁾이었다고 말한다. “가장 完璧한 誤算과 되풀이된 失足の 狀況들이 나를 세차게 휩쓸고 있는 동안, (...) 어지간히 疲勞한 自身の 質척거리는 意識과 환경의 수렁을 안쓰러이 確認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고 실족하게 만드는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그의 몸을 ‘휩쓸고’ 관통한다. ‘피곤한’ 몸과 ‘질척거리는 의식’과 ‘환경’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대끼며 지속적으로 마주치고 ‘확인’한다. 이때 “錯亂의 行動 空間앞에서 아무래도 잘못 태어났다고 하는 스스로의 生에 대한 강렬한 否定”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즉 어떤 강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듯한 ‘착란’은 자신의 삶을 온통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그의 의식을 추동한다. 권일송이 고백하는 삶 전체를 압도하는 ‘60年代’의 무게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닐 것이다.⁷⁸⁾ 공적 삶과 사적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당대 정치 사회적 사건들이 곧바로 신체 안으로 투입하며 나의 사적인 생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에게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저항’을 자신의 본위로 정위한 시인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75) 김윤식, 「어떤 4·19 세대의 내면 풍경」, 『김윤식 선집』 3, 솔, 1996, 378쪽.

76) 김영찬, 「4·19와 1960년대 문학의 문화정치 -이청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 시론」, 『근대문학연구』 15, 근대문화회, 2007, 141쪽.

77) 권일송, 「후기」, 『都市의 火田民』, 135쪽.

78) 4·19 혁명을 계승하고자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음충동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인데, 실제로 그는 “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두 번의 자살을 생각했고 일곱 번을 절망했으며 그저 텅으로 사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한다. 「시인의 말: 裸身の告白」, 『바다 위의 탕고』, 1991, 서문.

나는 기다리고 또한 지쳐 버렸다 / 해마다 봄을 향한 안쓰린 갈망을
두고 / 그 온갖 宣言과 作爲들이 허무히 / 무너져 간 絶糧의 뒤안에서 /
가느당게 파닥여 온 젊은 苦惱의 屍身 // 時間은 故障나고 희망은 눈 멀
어 / (...) 훗한 겨울밤 / 죽음같이 皎皎한 들녘 / 느닷없는 颱風과 搖動에
밀린 / 凶凶한 젊음의 緯度 없는 江 附近 //(중략) 詩는 기다리며 지친 者
의 하소다 / 詩는 살아갈 수 없는 者의 눈물이다 / 詩는 虐待받는 者의 영
원한 분노이다 //(...) 나는 기다리고 또한 지쳐 버렸다 / 더 큰 寬容의 손
이 봄을 다스리기 전에 / 가 버린 슬픈 친구의 무덤 위에서

- 「緯度 없는 江 附近」⁷⁹⁾ 부분

‘봄’은 “온갖 宣言과 作爲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시간으로 기록된
다. “時間은 故障나고 희망은 눈 멀어” 버렸다는 말은, 혁명이 실패했음을
잔인하게 증언하는데 이러한 증언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 버린 슬픈 친구
의 무덤 위에서”, 즉 혁명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죽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다. 끝없이 깊은 무기력감에 휩싸인 채
“나는 기다리고 또한 지쳐 버렸다”고 담담히 말하는 ‘나’는, 시인의 분신에
가까운 주체로 보인다. 이제 그의 눈앞에는 시인과 죽음, 겨울이 있을 뿐이
다.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시(詩)는 “기다리며 지친 者의 하소”, “살아갈 수
없는 者의 눈물”, “虐待받는 者의 영원한 분노” 등 한껏 축소된 형식일 뿐이
다. 저항이 자신의 본류에 해당되는 시편이라고 확고하게 선언하듯 말하던
시인에게, 시는 더 이상 몇몇하지 못한 기록으로 전락한다.

眞實은 아무데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또한 眞實이었다. 이 땅의
變則은 끝이 없었고 賣春의 藝術들이 어둔 混沌을 記錄하고 있을뿐, 어처
구니 없는 계절의 꽃들만 피고 이을었다. 詩를 쓰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
나 世俗의인 의미로 幸福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回顧와 後悔같은
것들이 때로 나를 괴롭힌 적이 많이 있다. (...) 사랑은 노상 暴力으로 대
답되고 성실은 嘲笑와 斜視속에 짓밟혀 와야 했던 나날, 나의 人生도 결
국 無意味했다. 몸살날 만큼 답답하고 無意味했다. (...) 그동안 客氣와 怒

79) 권일승,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60~63쪽.

號調를 많이는 청산했다 自慰해 왔는데 상기 發想의 節制가 무디고 『**털
어버리고 싶은 氣質의 遺産**』이 남아 있는 탓인지 거칠고 께죄죄한 것이
되어버린듯 싶어 부끄러울 뿐이다.⁸⁰⁾

혁명의 정신을 지향하고 계승하고자 애썼던 시인에게 1960년대 상황은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단어조차도 무색해진 시점이다. “사랑이 노상 폭력
으로 대답되고”라는 구절이 단적으로 적시하듯이, 자신이 믿고 따르던 가
치가 무너진 세계에서는 사실상 그 어떤 소통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시인 스스로 ‘시 쓰기’가 괴롭고 불행한 행위라고
고백한다거나, “거칠고 께죄죄한 것” 등으로 언급하며 부끄러움을 토로하
는 장면들이다. 권일송의 작품에서 시의 주체가 ‘시인’으로 등장할 때, 시는
예외 없이 ‘부끄러운’, ‘수치’의 것으로 규정된다. 특히 여기에는 “自信있게
스스로의 人生을 確認하지 못한 罪”⁸¹⁾와 같이 자기 성찰과 죄책감이 동반
되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4·19 세대 특유의 정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
의 주체가 극도의 피로함을 호소하면서 시를 ‘수치의 쓰기’로 규정하는 장
면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실이 뒤엎히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 한꺼번에 울고라도 싶은 /
그러한 沙汰난 시간 // 몸살나게 뻘쳐 오르며 /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
는 것 / 끝내 實吐하지 못한 채로 / 돌아가는 言語의 沒落들을 위하여 /
어둔 프락 깊은 밤의 꽃이 이운다

- 「換節期」⁸²⁾ 부분

왜 어려운 시를 쓰느냐고 / 당신이 물어 올 때면 / 정말 나는 외로웠
읍니다 // (...) 내 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 내 시가 살고 있는 주소가 /
어둡고 답답하여 / 시라도 어렵게 쓰고 있지 않으면 / 전혀 스스로를 확
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내 언어의 폭력은 실상 사랑입니다 / 사랑
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누구나 괴로운 노예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

80) 권일송, 「後記」, 『都市의 火田民』, 135~136쪽.

81)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47쪽.

82)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23쪽.

나는 조국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사랑할 수 없는 조국의 밤을
위하여 /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 「병어리 詩論」⁸³⁾ 부분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로 감기에 자주 걸리는 시기다. 시의 주체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인생에서의 ‘환절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성찰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사태난 시간”으로 묘사된다. 특히 “끝내 實吐하지 못한 채로 / 돌아가는 言語의 沒落들을 위하여”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는 ‘實吐’되어야 하는 언어들, 사실대로 표현되지 못한 채 침묵하는 순간을 “言語의 沒落”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적 주체의 부끄러움의 원인은 말해야 하는 언어를 말하지 못한 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는 자책과 그러한 침묵을 ‘언어의 몰락’으로 규정하는 장면은, 여기서 ‘실토’가 시인의 윤리의식과 결부된 행위임을 보여준다. 시적 언어를 “괴로운 노예의 언어”라고 규정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언어가 몰락한 세계에서는 시도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터, ‘병어리 시론’은 이러한 성찰적 사유를 통과함으로써 나온다.

‘시인-주체’는 자신의 시가 어려운 이유를 “내 시가 살고 있는 주소가 / 어둡고 답답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다른 시에서 “處刑된 사람들의 住所 위에 집을 짓고 / 汚辱의 손톱으로 역사를 기록하는”(『都市의 火田民』)이라고 노래했듯이, 여전히 그의 시는 처형된 사람들의 주소 위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쓰는 ‘어려운’ 시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사유를 따라 읽어 내려가면, “오욕의 손톱”을 활용해서라도 그가 “역사를 기록”하고자 애쓰는 이유, 스스로 시 쓰기를 ‘수치’라고 말하면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난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고통스럽게’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상 말해야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바로 그 수치에 관한 시 쓰기를 통해서 나의 몸에 각인된 (혁명의) 기억이 확인된다.

83)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10~11쪽.

이로써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수치의 시작(詩作)은 실존적 행위가 된다.

수치(shame)는 어원적으로 고트어 scham, 즉 ‘얼굴을 가림’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떤 ‘가장(sham)’이 아닌 ‘수치’로 전환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심과 욕망의 정도”에 기인한다고 설명된다.⁸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상이라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낄 이유도 없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욕망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로소 수치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수치심은 자신이 전지전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지적은⁸⁵⁾ 결국 수치심은 우리가 상정한 어떤 이상적인 상태와의 간극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려준다. 권일송 시의 주체가 시인으로서 설정한 ‘저항시인’의 위상과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로서의 현재는, 그 간극에서 강렬한 수치심을 파생시킨다.

그러나 수치를 시로 쓴다는 것은, 그 과정부터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또한 그렇게 작성된 시는 시인의 내밀한 내적 고민과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수치심을 대면하고 수치심에 의해서 기록하는, 동시에 수치를 기록하는 시는 ‘수치’에 내포된 의미를 궁극적으로 반성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윤리적 실천’일 수 있다.⁸⁶⁾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버린 허술한 詩”(「午後 이야기」⁸⁷⁾)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끄러운 시 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 “欺滿의 손을 위하여 / 때로 必要하면 適當히 詩를 쓰고 / 때로 必要하면 適當히 / 나라 사랑하겠다”(「午後 이야기」⁸⁸⁾)라며 시 쓰기와 조국 사랑을 ‘때로 필요하면 적당히’ 하겠다는 위약적인 목소리로, 그가 시작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나쳐가는 이 거리와 사람들은 문둥이다 / (...) 영양이 모자라는 열

84) 이정화, 앞의 논문, 109~111쪽.

85)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9, 318~319쪽.

86)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129쪽.

87)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42쪽.

88)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45쪽.

굴의 詩人들은 문둥이다 // (...) 빗속에 떠오르는 여인과 도시의/ 몰락들은
참말 황량하고 위대하다 // (...) 세월도 돌보지 않는 天刑의 영토 / 일
그러진 표상으로 질푼거리는 / 제마다의 痛恨의 길목 위에서 / 때로 천
길이나 되는 奈落 속 / 흔적없이 갈앉는 소돔城의 불길들 // 화려한 계절
地獄의 목소리가 들린다 / (...) 팽팽한 男根만을 디롱거리며 / D H 로렌
스씨의 碑銘 위에 / 점잖이 오줌을 깔기는 자네 // 朝鮮의 문둥이 諸先生
들 / 요란하게 웃음을 흘리는 망령들이 / 밤의 현관에서 / 빨간 情慾을
물고 썼다 / (...) 내 손이 짙는 打擊的 活字의 모든 것이 / 한 밤의 문둥이
불 멘 피릿소리 / 활 화알 타고르는 몸살이다.

- 「문둥이 노래」⁸⁹⁾ 부분

수치심에 사로잡혀 수치에 관한 시를 쓰는 것은, 윤리적 실천이기 때문
에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둥이 노래」에서 주체는 세상이 모두
병들어 있다고 말한다. “거리와 사람들은 문둥이”며, “영양이 모자라는 얼
굴의 시인들”도 역시 ‘문둥이’로 등장한다. 다른 시에서도 “그리고 보면 /
나도 무엇인가 / 앓기는 앓고 있다 (...) 그리고 보면 / 너도 무엇인가 / 앓기
는 앓고 있다”(「罹患中이외다」⁹⁰⁾)라고 말하며 세계의 병적 징후를 포착하
듯이, 권일송 시의 주체와 대상들, 세계 전체는 모두 ‘罹患中’이다. 하늘로
부터 부여된 형벌을 받은 문둥이 시인들은 “일그러진 표상으로 질푼거리
며” 세계의 멸망을 예언한다. 이어지는 파멸, 몰락, 폐허, 천형, 통한, 나라
등의 시어는 세계 전체를 ‘소돔성’, ‘지옥’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왜곡된 성욕의 형태로 “팽팽한 남근만을 디롱거리며” 외설스럽게 로렌스
의 비명(碑銘)에 “오줌을 깔기는 자네”들이란, 다름 아닌 시인들이다. 이러
한 퇴폐적이고 성적인 이미지들은 ‘문둥이’로 전락한 시인의 운명을 왜곡된
욕망의 신체를 통해 단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수치’는 신
체에 ‘병어리’로, ‘문둥이’로, 치명적 흔적을 남긴다. 그가 쓰는 ‘활자’는 “한
밤의 문둥이 불 멘 피릿소리”처럼 처절하지만 부끄러운, 고통의 기록에 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활 화알 타고르는 몸살”처럼 그의 몸은 ‘수치’에 강렬

89)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20~21쪽.

90) 권일송, 『都市의 火田民』, 16쪽.

하게 정동되고 있다. 어쩌면 이다지도 불경스럽고 외설스러운 순간을, 그토록 부끄러운 수치스러움에 온 몸이 몸살을 앓듯 돌아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끝내 포착하고자 애쓴 점이 바로 1960년대 권일송 시의 각별한 지점일 지도 모른다.

5. 결론: 4·19세대 정동으로서의 ‘수치’와 이후 권일송 시의 행보

지금까지 권일송의 초기 시를 ‘1960년대’의 시적 재현과 ‘수치’의 정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였다. 권일송은 4·19 혁명을 지속적으로 사유하면서 계승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고 자신의 시적 정체성을 ‘저항’으로 택한 시인이다. 시인의 혁명 정신은 4·19가 상징하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지향, 즉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일체의 폭력적 세력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에 대한 보편주의적 사랑으로 요약된다. 그는 제3세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희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세계, 잔혹한 낙관주의가 종언된 세계에 도달한다. 베트남 전쟁은 갈수록 확산되며 수많은 사상자를 낳으며 정당성을 잃었고,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남한의 현실에서는 “거치장스런 主義와 未來 따위”(「主抵抗線」)는 의미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깊은 상실감과 허무주의 앞에서 그가 선택한 방식은 추악한 현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권일송은 ‘朝刊 三面의 일상적 騷音’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밝히고 1960년대 특정 사건들을 알레고리적으로 재현한 작품을 많이 쓴다. 예컨대 국토건설단, 제5대 대통령 선거,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밀수사건, 존슨 대통령의 방한, 국회오물투척사건 등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의 몸에 각인된 감정, 감각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작품에는 눈물과 우울, 패배감,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이 팽배하다. 그러나 ‘불행한’ 사건을 대면하고 “어려운 거리의 네 거리에 서서”(「모킹·버드」의 回顧) 그

것과 만나는 장면은 '부끄러운' 시 쓰기로 연동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권일송 시의 주체는 지속적으로 60년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들과 마주치고 있으며 그 마주침을 신체적 경험을 통해 재현한다. 중국에 그는 언어의 몰락을 선언하고 자신의 시를 '수치의 시 쓰기'로 규정한다. 혁명 정신의 좌절을 통해 만나게 되는 '수치'는, 1960년대를 수치의 경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인의 윤리의식과 결부된 중요한 정동이다.

박정희의 제5공화국은 억압적 정치 체제가 모든 것을 압도하던 시대였다. 대통령 중심제의 강력한 권한이 행사됨으로써 폭력적 상황들이 자행되고 있었지만 경제발전의 신화는 이 모든 것을 은폐한다. 당시 지식인들이 느꼈을 패배감과 환멸을 고려하면 1960년대 문학에서 강하게 감지되는 부끄러움, 수치, 치욕, 위약 등의 정동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당연함은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아니다. 권일송 시에서 '수치'의 정동은 극도의 피로함을 호소하며 강한 자기 성찰과 죄책감을 동반하고 있다. 스스로 설정한 '저항시인'의 위상과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로서의 현재는, 그 간극에서 강렬한 수치심을 파생시킨다.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러한 수치에 관한 시 쓰기를 통해서 나의 몸에 각인된 '혁명의 기억'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권일송 시에 나타난 '수치'는 '1960년대'라는 하나의 상징적 세계와 주체의 지속적인 '마주침'에서 생성되는, 4·19 세대 특유의 정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권일송은 현실 참여적 경향의 『신춘시』 핵심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느 시인보다도 1960년대를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성실하게 기록한, 단연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시문학사에서 권일송은 단 한 차례도 호명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시문학사에서 『신춘시』가 완전히 배제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시인들의 이름 역시 한꺼번에 지워졌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신춘시』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이거나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본고의

문제의식은 김수영, 신동엽이라는 두 시인이 감당/삭제하고 있는 1960년대 참여시 창작에 적극 동참했던 개별 시인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문학사에 기입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원한다.

주지한바, 1970년대 들어서서 권일송은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했다. 수치를 시로 쓴다는 것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수치의 쓰기가 지닌 위험성은, “작가의 몸”이 “생각과 경험이 충돌하는 전쟁터”⁹¹⁾가 되는 수준으로 빚대어지기도 한다. 그가 1991년 펴낸 시집에서 “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두 번의 자살을 생각”⁹²⁾했다고 밝혔듯이 70년대 이후 그의 ‘수치’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과잉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다. 1980년대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권일송은 새로운 탈출구로서 ‘여성’(바다)과 ‘꽃’의 이미지에 천착한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소용돌이에서” 발견한 비비추 꽃은, 시인에게 “위안과 환희”⁹³⁾의 의미로 다가선다. “내 안의 파아란 불빛”(「비비추의 사랑」⁹⁴⁾)을 일깨워준 여름 풀꽃에서 그는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배운 것 같다. 어쩌면 비비추 꽃의 생명력은 ‘수치’에서 ‘치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서 선택된 것인지도 모른다.⁹⁵⁾ 이후 권일송이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던 노래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른 지면을 기약하겠다.

91) 펠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위스 편저, 앞의 책, 159쪽.

92) 권일송, 「시인의 말: 裸身の告白」, 『바다 위의 탕고』, 1991, 서문.

93) 권일송, 「나의 시, 나의 삶」, 『바람과 눈물사이』, 홍익, 1987, 123~124쪽.

94) 권일송, 『바람과 눈물사이』, 118~119쪽.

95) 그러나 권일송은 “시인이란 한 시대의 위대한 예감을 사는 이방인”이라고 역설하면서 시대정신이자 기록자,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역사의 전초에 나서는 존재로서의 시인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권일송, 「시의 향기」, 『세상을 보는 눈』, 예문당, 1994, 74쪽). 권일송의 시론과 그의 중기, 후기 시에 대해서는 이후 상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 권일송,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한빛, 1966.
_____, 『都市의 火田民』, 한빛, 1969.
_____, 「이 기수를 보라」, 『이 성숙한 밤을 위하여』, 지소림, 1978.
_____, 「나의 시, 나의 삶」, 『바람과 눈물사이』, 홍익, 1987.
_____, 「시의 향기」, 『세상을 보는 눈』, 예문당, 1994.
『신춘시』 1~19집, 1963~1969.

2. 논저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3.
김건우, 「「분지」를 읽는 몇 가지 독법-남정현의 소설 「분지」와 1960년대 중반의 이데올로기들에 대하여」, 『상허학보』 31집, 상허학회, 2011.
김영찬, 「4·19와 1960년대 문학의 문화정치-이청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 시론」, 『근대문학연구』 15, 근대문학회, 2007.
길혜민, 「1960년대 동인지 『신춘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6.
김수영, 『김수영 전집 2 산문』, 민음사, 2000.
김윤식, 「어떤 4·19 세대의 내면 풍경」, 『김윤식 선집』 3, 솔, 1996.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9.
김지영, 「오늘날의 정동 이론」,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00호, 2016 봄, 2016.
박대현, 「1960년대 동인지 『신춘시』의 위상」, 『상허학보』 39, 상허학회, 2013.
_____, 「4월혁명과 죽음충동-1960년대 참여지식인의 정신사적 심층에 대한 시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4.
_____, 「‘난해한 공화국’의 시인들 -1965년 체제와 〈신춘시〉의 문학적 분투에 대하여」,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박세영, 「이시카와 타츠조오(石川達三)의 문학 연구: 『살아있는 병사(生きている兵隊)』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1, 한일군사문화학회, 2003.
유창민, 「1960년대 『신춘시』 동인의 세대 의식 연구」, 『겨레어문학』 제61집, 겨레어문학회, 2018.

- 이근배, 「60년대의 비문을 읽으며」, 『시인세계』 2006년 봄, 2006.
- 이성부, 「개인의 초극」, 『문학과지성』, 1973. 겨울.
- 이승하 외, 『한국 현대 시문학사』, 소명, 2019.
- 이승훈 · 이동하 · 박남철, 「1960년대의 시인들-오늘의 증견시인들을 해부한다」, 『문학과비평』 봄 창간호, 1987.
- 이정화, 「수치의 젠더 정치학: 존 쿣시의 『치욕』의 예」, 『인문학연구』 제56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 임규찬, 「4월혁명의 기억과 글쓰기-문학 속의 4·19, 특히 소설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2집, 한국작문학회, 2011.
- 정운현,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인문서원, 2018.
- 조강석, 「1960년대 한국시의 정동과 이미지의 정치학(1)-김수영의 경우-」,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한규한, 「5·16 쿠데타 직후 국토건설단과 지식청년 ‘군기잡기」, 『역사비평』 111호, 2015년 여름호, 2015.
- 한흥구, 「전쟁과 동원이데올로기-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3.
- 함돈균, 「한국문학사 또는 한국 현대시와 정동(affect) 담론의 양태들」, 『상허학보』 49집, 상허학회, 2017.
-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9.
- 멜리사 그레그 ·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 김지영 · 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6.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3. 기타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1.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0.1.5.)

〈Abstract〉

**The Poetic Representation of the 1960s
and the Affect of Shame**
: Focusing on the Early-Period Poem of Kwon Il-Song

Cho, Eun-Joo

This study analyzes the 1960s and the affect of shame as depicted in the early-period poem of Kwon Il-song. He positioned his status as a poet at 'resistance' without hesitance. Choosing one's poetic identity in the 1960s as 'resistance' is to declare a will to inherit the April 19th Revolution and its spirit that was achieved upon sacrifice of many of his contemporaries. Revolutionary spirit of Kwon Il-song can be summarized as an active pursuit of the spirit of freedom and equality embodied in the April 19th Revolution, resistance against colonialism, imperialism, and all other violent forces, as well as universal love of the mankind. Based on the legacy of revolution, he endeavored to contain his conviction to achieve a better future, but ironically, arrived at a world where belief and trust collapsed, a world where cruel optimism came to an end. Instead of falling into deep nihilism, he chose to confront ugly 'truths of pigs' and testify to them. He reproduced historical events of the 1960s including the national construction group, presidential election,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illegal smuggling, visit of the US president Johnson, and the spilling of filth at the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the emotions and sensations that people of the time felt. These poems are rife with tears, gloom, sense of defeat, frustration, and feeling of helplessness. Eventually, he sensed the fall of language, and prescribed his poem as 'writing of shame'. This sense of 'shame' that he encountered following frustration with the revolutionary spirit is an important affect that is tied to the poet's ethics in the sense that he reconstructed the

1960s as a shameful experience and invested new meanings in them accordingly.

* Key Words: Kwon Il-Song, Affect, Shame, Revolutionary Spirit, the 1960s

·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2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12일
